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59호 [우계 제 25668호] 주제 106 (2017)년 6월 8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해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일환동지,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전용남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가 성대히 진행된 영광의 대회장을 배경으로 풍경에도 소원하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게 된 참가자들의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촬영장은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과 절을 합쳐 우리 학생소년들을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내세워주시며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한결같은 축원의 마음을 담아 소년단체대표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올리고 붉은네라이를 메여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는 조선소년단을 영원히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김정일소년단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항일아동단의 전통, 백두의 혈통을 곳곳이 이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 청년동맹의 참다운 교대자들로 튼튼히

준비해가는 300만 소년단원들의 기상을 만방에 과시한 대회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회참가자들이 우리 혁명과 주체적소년운동발전의 요구에 맞게 소년단사업에서 새로

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며 조선소년단을 지역제의 롤마라고 사회주의조선을 위하여 항상 준비해가는 백두산대국의 미래의 주인공들의 대오로 억척같이 다져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목청껏 리치는 참가자들의 격정에 넘친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진두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어 주제적소년운동의 전성기를 펼쳐나가는데서 강명적인 지지를 안겨주시였으며 오늘날 사랑의 한풍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고마움에 넘쳐 참가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한생토록 소중히 간직하고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소년단의 붉은 기발을 휘날리며 혁명의 계승자,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메고나갈 기동감들로 역세게 자라날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뜨거운 념원

작사 리지성  
작곡 현경일

뜨겁게 (♩=68)

1. 구름너머그이계신 곳 비내릴가찬바람 불 가

바람결이웃-깃을 스 쳐도- 그이께로마음달리 네

멀고험한그 길 그러여보며 자나깨나오 직 바라옵니다 원수

님 -계신곳 에 봄빛 만 흘러가기 를

2. 굶은비에 옷자락뒀던 공장길에 눈에 어리네  
흰눈이 어깨우에 쌓이면 포구길을 잊을수 없네  
쉬임없이 가신 헌신의 그 길  
가슴속에 맺혀 소원합니다  
원수님 가실 길에 해빛만 비쳐가기를
3. 맞으신 눈 모두 합치면 높은 산을 이루게 되려  
헤쳐가신 찬비가 모이면 깊고깊은 바다가 되려  
우리 미래 위해 내 조국 위해  
귀중하신 그이 더 잘 모시려  
안녕을 바랍니다 우리의 김정은동지

# 우리 수령님 잡아주신 보배손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시대의 이 부름앞에 온 나라가 불도커나마냥 끓어먼지고있다. 승리와 영광의 대희에로 향할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서 만리마선구, 만리마선구자의 영예를 펼치고 시대의 영웅이 되려는 것이 우리 인민 모두의 한결같은 열망이며 의지이다.

혁사는 때일을 비쳐주는 불꽃이라는 말이 있다.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합창곡 율리히 세기를 주름잡던 그대처럼 《우리는 만리마선구자의 노래를 우렁차게 부르며 세계를 놀래우는 영웅신화, 자력자강의 기적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총진군대오에 필승의 신심이 넘치고있다.

우리 혁명력사에 영광스러운 년대로 새겨진 천리마선구자를 돌이켜볼수록 시대의 영웅들을 한 사람한사람 찾아내고서 진인인 적대진군대오의 앞장에 내세워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어려와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는 탄만군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수령님은 혁명가적 품모에 있어서나 인강적품모에 있어서나 누구도 견줄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우리 인민이 오늘도 기억하고 있는 천리마선구자들속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시대의 영웅으로 자라난 평범한 선안공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선안공을 만나시것은 주체48(1959)년 3월말 당시의 통일기계 풍광을 현저되게 하였다.

자신이 생산혁신자가 되고 작업반을 집단적혁신운동에로 이끌고있는 그를 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대견해하시었다. 우리 당의 참된 아들이라고 그의 어깨를 어린듯 두드리 주시고 계속 혁신을 일으키라고 고무하시며 기쁨을 손도 하물없이 잡아주신 우리 수령님.

순간 가슴은 펴하고 마치 심장에 불이 달린듯 같이 격정을 누를수 없었던 사람이 어찌 그 선안공뿐이었나.

혁명력사에 대담성이 있어 야 한다고 하시며 대혁명적기행생산에로 불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저교시를 받들고 통상의 로동계급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대담하게 작은 선안을 가지고 대혁명풍광을 가동하여 8만리안을 만들어냈다. 그들이 세운으로 만든 8만리안은 3000트랙스의 생산을 담보했고 이 3000트랙스는 4000hp압축기를 비롯한 대형설비들을 담고 있었다.

그후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여러차례 그 선안공을 만나 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으며 은혜로운 손길따라 그는 물러보게 성장해갔다. 최고인민회의

의 영웅으로 자라난 평범한 선안공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선안공을 만나시것은 주체48(1959)년 3월말 당시의 통일기계 풍광을 현저되게 하였다.

자신이 생산혁신자가 되고 작업반을 집단적혁신운동에로 이끌고있는 그를 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대견해하시었다. 우리 당의 참된 아들이라고 그의 어깨를 어린듯 두드리 주시고 계속 혁신을 일으키라고 고무하시며 기쁨을 손도 하물없이 잡아주신 우리 수령님.

순간 가슴은 펴하고 마치 심장에 불이 달린듯 같이 격정을 누를수 없었던 사람이 어찌 그 선안공뿐이었나.

혁명력사에 대담성이 있어 야 한다고 하시며 대혁명적기행생산에로 불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저교시를 받들고 통상의 로동계급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대담하게 작은 선안을 가지고 대혁명풍광을 가동하여 8만리안을 만들어냈다. 그들이 세운으로 만든 8만리안은 3000트랙스의 생산을 담보했고 이 3000트랙스는 4000hp압축기를 비롯한 대형설비들을 담고 있었다.

그후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여러차례 그 선안공을 만나 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으며 은혜로운 손길따라 그는 물러보게 성장해갔다. 최고인민회의

# 사연 깊은 민들레 학습장

민들레, 이 땅의 산과 들에 뿌리내리고 그 유한 향취를 풍기는 민들레, 그 민들레가 우리 아이들이 즐겨보는 학습장의 이름으로 되거까지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여 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지난해 4월 민들레학습장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물포본실에 들리시었을 때이다.

그곳에 권원철 민들레학습장 건물공사를 바라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건물은 학습장을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주는것은 그들의 가슴마다에 우리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민들레라는 명칭을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의 가사를 읊으면서 지었다고 함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승업한 조국애를 불러일으키는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민들레 공예 피는 고향의 언덕, 조용히 눈을 감아도 푸른빛 어리고 품속에서도 맑게만 보 이는 내 나라의 하늘.

위대한 장군님께서선군혁명명도의 나라 어느 한 지방공장에서 학습장건설을 위해 만든 공예 《내 나라》라는 찬미를 남기시었다.

애국심은 자기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데서부터 일어나는 사상감정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승교한 뜻 안으시고 우리 아이들의 가슴마다에 애국의 마음을 심어주시며 그토록 크나큰 심혈과 노력을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민들레학습장과 더불어 꽃피어 나가는 그 열매였는가, 어느 한 시인이 노래한 《민들레소녀》에 더한 이야기기 되게 하려나.

삼과 죽음의 계선이 불타가까이 다져졌던 운명의 그 시각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들 속에 안은 어머니를 따라 온가 가슴에 두 그리우고 나선것은 민들레학습장이 들어있는 책가방이었다.

어머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승교한 뜻이 어떤 민들레학습장을 그 무엇보다 귀중히 여긴 《민들레소녀!》

그 나라의 미래를 달려가는 어린이들을 보라는 말이 있다.

정경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정이 피어날기 돌려들기애 조국의 미래는 그러도 상상할 것이다.

본사기자 강원남

# 혁명의 성산 백두산 탐사, 백두산밀영고향집 방문

백두산지구 혁명전진지 탐사하고있는 당선진 일꾼들이 6일 백두산에 올랐다.

우리 민족의 넋이 깃들여있고 선군조선의 정신과 기상이 응축되어 있는 혁명의 성산, 주체혁명의 발원지이며 승리의 상징인 백두산정에 올라 환희와 감격에 넘쳐 그들이 부르는 《만세!》의 환호성이 백두의 산발에 메아리쳤다.

천원철 백이간 산발과 천고의 뱀뱀을 바라보며 그들은 간고하고 시련에 찬 할대편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단고의 항쟁사와 백두의 당력과 기상으로 조선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가슴깊이 되새기었다.

당사행군대원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깃들여있는, 김정일조선의 위대한 정신력의 근원지인 백두의 혁명정신을 더욱 굳게 심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승교한 뜻을 받들어 최후의 승리를 향한 장엄한 투쟁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가길 신념과 의지를 다지었다.

당선진일꾼들은 7일 백두산 밀영고향집을 방문하였다.

유서깊은 태양의 성지에 도약한 탐사행군대원들은 조선의 제일봉, 정일봉을 우리로써 끌어올리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은 백두산밀영에 모신 백두산3대장군의 묘지묘역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려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원철시비에서 해설을 들은 탐사행군대원들은 백두산밀영을 돌아보았다. 사명부귀를 버린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0년대 후반기부터 이곳을 조선혁명의 핵전지로 정하시고 전민적인 만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양양으로 이끄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두하였다.

백두산밀영고향집에서 탐사행군대원들은 백두평명성으로 한층하여서 한평생 조국의 무궁비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국헌신의 선군정신을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이 가슴뜨겁게 어려와 오래 동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그들은 우리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고 지켜준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대를 이어 수령님, 장군님을 누리며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올 수 있었음을 다시금 절감하였으며 조선의 고향집을 정신적기둥으로 삼고 어머니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힘차게 싸워갈 결의를 굳게 간직하였다. 탐사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진군의 길에 올랐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리용한 사자봉밀영도 찾았다. 그들은 밀영의 사명부귀를 버리고 출산소 그리고 항일유적의 장엄함을 규율과 질서정연한 생활면모를 보여 주는 대원지시지, 우동불자리, 구오나루 등을 돌아보았다.

이날 당선진일꾼들은 시랑송모임과 혁명가요합창정연을 진행하였다. 무비의 당력과 배방, 파월한 평군술로 일제의 백만대군을 위락시켜하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태양이신 밀서산 김대장을 소회놀이 격찬한 장편시사 《백두산》의 구절구절들은 그들의 가슴마다에

# 조선로동당의 강화 발전에서 특기할 사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년에 즈음하여 그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당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5월 23일부가 게재하였다.

신문은 1964년 6월 19일은 김정일동지께서 사업을 시작하신 역사적인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것은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당으로,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항도력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어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다져놓으시었다.

그이의 명도됨에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사상과 명도됨에 확고히 선 혁명적당,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어머니당, 강한 조직성과 규율성을 가진 불멸의 당으로 위용 면져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반사회주의공세에 조선에 집중되던 시기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리고 군권강화를 선차적행동을 넘어서 사회주의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었다.

그이에 의하여 군민대단결이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강국건설의 든든한 도약대가 마련되었다.

한세기전까지만 하여도 식민지약소국으로 세계무대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이 오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방사성, 당당한 원보유국으로 위용면져있고있는 것은 김정일동지께서 선군명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꾸민이 빛내여나가는것은 김정일동지와 함께 조선로동당원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며 억척불변의 신념이다.

# 중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중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6일에 진행되었다.

보고회에는 관계부문, 사업소일꾼들,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중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일련단심 당과 수령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백두의 혁명정신과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부딪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 김일성동지께서 지시하신 김일성동지께서 지시하신 모든 사업을 수완이 일파세회 혁명의 수도 평양을 용장되려하게 변모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 중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지체인 최승철의 기념보고에 이어 기사장 조용학, 직장장 미선길, 파장 조일진이 도문하였다.

보고자와 도문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 간직하고 축하문은 70일전투와 200

한 수많은 중요대상건물을 맡겨 주시었으며 제대군인들을 파견해주시고 위대한 중기계를도 보내주시면서 수도건설에서 한몫을 단단히 하는 전무력있는 건설력량으로 자라나도록 깊은 감정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고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사업소가 창립된 후 지난 70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명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대건설전투의 년대기들을 이어오며 집일성총합대학과 인민보육원, 국제전선전망관, 김일성동지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을 비롯한 1450여개 대상의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에 총정파위원의 자속을 아로새김대 대하여 강조하였다.

사업소의 로동계급은 최근년간은 화학자거리와 미배과학자거리, 평원거리의 건설대상들을 호형화, 예술화가 실현되고 인민대중제일주의가 펼쳐지 구현된 최한 창조물로 완공함으로써 건설의 대인정기를 펼치는 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소년군을 비롯

# 조선은 주체, 선군으로 위용떨치고 자강력으로 전진하는 나라

일선단결의 정치사상강국, 불멸의 군사강국,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위용떨치고 조선인민과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가고있는 우리 조국의 강용한 기상은 로씨야 인사를들에서 커다란 정열을 자아내었다.

모든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땅이 가리키는 대건설전투의 격진장마다에서 만리마선구자의 불길들 세차게 지어올리며 천년백일, 만년백중의 힘에서 모든 건설물의 집을 완전무결하게 보장해나갈 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도문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강진도정신상조자들과 규율의 영웅광부들이 발휘한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동지계급의 혁명적기상과 본래를 남김없이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일선단결의 정치사상강국, 불멸의 군사강국,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위용떨치고 조선인민과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가고있는 우리 조국의 강용한 기상은 로씨야 인사를들에서 커다란 정열을 자아내었다.

모든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땅이 가리키는 대건설전투의 격진장마다에서 만리마선구자의 불길들 세차게 지어올리며 천년백일, 만년백중의 힘에서 모든 건설물의 집을 완전무결하게 보장해나갈 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도문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강진도정신상조자들과 규율의 영웅광부들이 발휘한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동지계급의 혁명적기상과 본래를 남김없이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일선단결의 정치사상강국, 불멸의 군사강국,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위용떨치고 조선인민과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가고있는 우리 조국의 강용한 기상은 로씨야 인사를들에서 커다란 정열을 자아내었다.

모든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땅이 가리키는 대건설전투의 격진장마다에서 만리마선구자의 불길들 세차게 지어올리며 천년백일, 만년백중의 힘에서 모든 건설물의 집을 완전무결하게 보장해나갈 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도문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강진도정신상조자들과 규율의 영웅광부들이 발휘한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동지계급의 혁명적기상과 본래를 남김없이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산밀영고향집 방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나라의 영웅이 키우자

지난 1월 초 백두산일영고향집에 정성의 학대학 학생들의 답사행...

백두산에로의 답사길에 오른 아버지와 아들

평성의학대학 과장 리광선동무의 가정에서

수많은 지원봉사자를 성심성의껏 마련해가지고 다음해에 혁명의 성지로 달려갔다. 백두산, 얼마나 그리울던 마음의 고향인가. 그가 받은 충격은 너무도 컸다.

원동자를 마련했다. 백두산 일영고향집을 떠나갈 때면 소백수의 맑은 물을 소중히 여기고 고요한,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맞이하러 그들의 가슴마다에 백두의 넋을 인거 주곤 한 리광선동무였다.

혁명의정신을 백두산이 새겨 게 되고 항일혁명선열들의 넋을 이어 주세혁명을 완성 해나갈 각오와 의지를 더욱 굳 게 다지게 될것이었다. 성스러운 그 길로 이끌어주는것이 바로 조국과 혁명, 후대들에게 지 내 부모의 마땅한 의무라고 리광선동무는 생각했다. 그것은 의무이기 전에 향심이며 이 나라 봉인의 도리였다.

북청군의 한 영예군인이 보내온 편지 보고

북청군 127인민반에 살고 있는 영예군인 박홍봉동무가 편지를 보내어왔다.

얼마전 본사전집국으로 북청군 127인민반에 살고 있는 영예군인 박홍봉동무가 편지를 보내어왔다. 편지에는 군사임무수행 중 뜻밖의 위험속에서 봉지들을 구원하고 영예군인이 되어 돌아온 자기를 위해 북청군 일꾼들이 기울인 가지까지의 가슴 뜨거운 사연들이 적혀있었다.

새 새 과 거 목

송림시 새살림 1동 39인민반 박인철동무의 가정에서

지금으로부터 어찌하면 어 느날 통제제정원합기업소 구 내로 갈 로인과 하여낸 소년 이 학교였다. 아버지까지 고는 손수레를 밀며 소년이 울었다.

아름다운 소행의 밀뿌리

대동강구역 분수3동 2인민반 김연순동무의 생활에서

시부모공경을 잘해서 마음 에서 헛지 않은 머니라고 불 리우는 한 녀성이 있었다. 대동 강구역 분수3동 2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연순동무이다. 직장일을 하면서도 집안살림 에 관심을 돌리며 시어머니 가 없을새라, 적적해하며 원 심을 쓰는 김연순동무이지만 그속에서 늘 놓치지 않는것이 있다. 자녀교육이다.

한평의 꽃을 더 활짝 피우는 자랑분

북청군 127인민반에 살고 있는 영예군인 박홍봉동무가 편지를 보내어왔다.

이런 후대엔 정과 사 랑이 있어 참상에 누워 있던 영예군인은 일어나 애통을 있게 되었고 인 민군인들에게 대한 원로 사업과 건설장들에서의 정세사업도 힘있게 밀려왔다. 영예군인의 편지를 보 며 우리는 생각했다. 영예 군인이 혁명의 꽃을 더 활 짝 피우소서 있는 자랑분은 조국보위소속에서 참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친 영예군인들을 자신의 영원한 전우, 동지로 내세워 주시고 보살펴주시는 경여하는 현수님의 뜻을 받들고 의미, 헌신으로 만드는 이런 참된 일꾼들이 고여가는 뜨거운 전 집이라고. 본사기자 조경철

일제는 우리 나라를 총칼로 침략한 백년속적

반제반미계급교양의 거점인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아서 (1)

적본성과 남조선피억적들과 계급적원수들이 우리 민족, 우리 인민에게 지저분 만고피악을 다시금 날남이 전하기 위하여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았다. 우리는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수백년전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 한 일제의 죄악의 역사를 구제적으로 전승되어있는 만일교양관 1호실에 들어섰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난날 40년동안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해아...

이제 우리 나라의 국권과 국토를 군사적으로 강탈하고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강행할 때 시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한 일제의 죄행을 날남이 폭로하는 자료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일제는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 투쟁도 무자비하게 탄압말살하였다. 일제는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 투쟁도 무자비하게 탄압말살하였다. 일제는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 투쟁도 무자비하게 탄압말살하였다.

일제는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 투쟁도 무자비하게 탄압말살하였다. 일제는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 투쟁도 무자비하게 탄압말살하였다. 일제는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 투쟁도 무자비하게 탄압말살하였다.



